

‘언어의 근원’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영무씨는 곧잘 인간의 말을 흉내 낸다. 그건 영무씨가 인간의 말을 잘 흉내 내는 것보다 구강해부학적 특성에 기인한다. 반면 지능이 높은 침팬지나 개는 인간 언어의 발성을 거의 흉내 내지 못한다. 침팬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동물을 상당히 잘 ‘흉내 낸다’. 이는 ‘거울 뉴런’ 효과로 설명된다. 거울 뉴런은 인간의 손가락 운동과 얼굴 표정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게 되었을까’ 중에서〉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언어 사용 능력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배적 위치에 오르게 했다.

그렇다면 언어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내린 선물일까? 아니면 진화 과정에서 우연하게 획득한 산물일까?

위의 질문은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기본적으로 언어가 있었기에 인간이 말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언어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인간의 언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학습을 통해 획득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내기 위해 인류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난 이가 있다. 언어학자이자 생물학자인 독일의 루트 베르거 박사가 쓴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게 되었을까’는 언어의 흔적을 찾아가는 보고서다.

저자는 일단 ‘창조론’은 차치해두고, 인류의 원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언어의 발생 과정을 추적한다. 이를 위해 생물학에서부터 신경과학, 고고학, 화석인류학에 이르기까지 종합무진 지적 탐험을 전개한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언어능력을 본능보다 문화작용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인간이 ‘에스페란토’(인공 언어)나 ‘볼라퓌크’(국제 언어) 같은 새

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데서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최근까지 학계를 지배해온 것은 촘스키의 보편문법 이론이었다. 인간이 언어 문법을 지배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저자는 촘스키의 주장에 반대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른 연구자들이 선천적 획득인지, 환경적 요인인지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개, 영무새, 침팬지 등의 동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동물 실험뿐 아니라 화석 유골을 해부학적으로 분석, 인간과 동물의 발생기관을 연구한 부분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여전히 언어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났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한마디로 언어에 관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저자는 이전까지의 수많은 연구를 소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 연장선에서 독자들은 언어에 관한 ‘시험관’이 가득 들어찬 ‘실험실’을 둘러보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영무새나 호모에렉투스의 ‘기묘한 언어’를 잠시 만나보는 과외의 속도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광활한 ‘탐사’를 통해 언어는 인간 진화의 끝이 아니라 진화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연구가 방대하고 불확정적인 만큼 언어는 우리 미래에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신이 언어를 배운 덕분에, 언어가 두뇌를 빚어내는 데 참여한 덕분에, 우리는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다. 언어는 우리가 개인 정신을 갖도록 만들었으며 우리의 일반적인 지능을 깨웠다. 언어는 인류의 특징인 특별 재능을 선물했다.”

〈알마·1만8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게 되었을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루트 베르거 지음



‘다른 모든 눈송이와...’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은희경 지음



‘수줍게 먹는 황금’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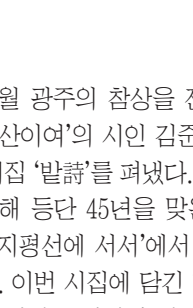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줍게 먹는 황금’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

수하 지음